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 건축문화의 시작이다

글. 백민석 · 본지 편집국장

건축을 전공한 분들은 누구나 강의나 문헌을 통해서 '건축(建築, architecture)'의 어원에 대해서 접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똥맞게 갑자기 건축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건축'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건축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일반인과의 대화와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건축'이라는 용어가 서양을 기원으로 한 'architecture'의 의미와 building(건축물), construction(시공, 건설) 등을 지칭하는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식 문건인 건축 관계법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rchitecture의 어원은 'architect'에서 출발합니다. 고대 그리스 어휘인 'archi'(우두머리)와 'tekton'(무엇인가를 만드는 제작공)의 합성어인 'architekton'(제작공의 관리자)과 라틴 어휘인 'architectus'(커다란 작업의 계획자, 건물을 짓는 자에서 세상의 창조자까지 만드는 작업의 계획 감독의 주체)에서 유래되었고 기원전 44년에 쓰인 키케로의 편지에 비로소 'architectura'라는 용어로 architecture가 표현됩니다. 이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建築十書)를 재발견한 시대인 르네상스의 영향력에 힘입어 'architecture'라는 단어가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建築)'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메이지시대에 'architecture'의 번역어로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아쉽지만 올바른 번역어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건축공학(architectural engineering)도 올바르게 표현된 용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1842년 학문적으로 처음 사용된 이후 널리 퍼져 사용되었지만 1990년 중반부터는 미국 국회 도서관 도서분류법에 의해 이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듣는 이에게 의미의 혼란을 초래하는 정반대의 단어가 잘못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축공학과 유사한 용어로 건물공학(building engineering)을 들 수 있는데 이 용어 외에도 구조, 시공, 재료, 설비, 환경, 도시계획 등 대부분의 전공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architecture)'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건물(building)'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는 건축이 일반적으로 물리적 대상물보다는 건물에 대한 예술과 과학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토목(土木)은 상하수도, 도로,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말하고 건설(建設)은 사전적으로는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 등의 공사, 시공을 의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건설공사(建設工事)'의 의미는 '토목공사(土木工事)'를 뜻합니다. 정부자료에서도 토목이 아닌 건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건설과 건축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토목을 뜻하는 건설이 건축을 압도하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건축문화가 피어나기 어렵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국내의 현실입니다.

건축 관련 용어들의 올바른 정립과 사용이 우리 사회 내 건축문화 자리매김의 시작입니다.

※ 'architecture'의 어원과 관련된 내용은 2009년 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 발표된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의 Architecture/Architect의 의미에 대한 연구'(서현 저)에서 인용했으며 '건축공학(architectural engineering)'과 관련된 내용은 1999년 도서출판 발언에서 발간한 '건축교육의 미래-국제화와 전문화를 위한 제언'(김병렬 외 7인 저)에서 인용했습니다.